

##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최 해 주\* · 오 세 희\*\*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과\*\*

###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Fashion by Type

Hae-Joo Choi\* · Se-Hee Oh\*\*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Planning,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투고일: 2009. 11. 20, 심사(수정)일: 2009. 12. 1, 게재확정일: 2009. 12. 28)

#### ABSTRACT

The concept and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thnic fashion were studied. 267 fashion designs from pret-à-porter collections in Milan and New York from 2001 S/S to 2005 F/W were analyzed.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The major types of ethnic fashion are Africa, American Indian, Japan, India, China, and Inca. Among these types, the first volume is Africa, the second is American Indian and others are Japan, India, China and Inca in order. Ethnic fashion changes in years showed reduction from 2001 to 2004, but much rise in 2005 showed more than 30% from 2001. Much more ethnic fashion designs were presented in S/S seasons than in F/W seasons. Africa ethnic fashion designs were more popular in S/S seasons. India ethnic fashion designs were more popular in F/W seasons. In the comparison of the Milan and New York collection, ethnic fashion designs appeared more in Milan collections than in New York from 2001 to 2003. But ethnic fashion designs appeared more in New York collections than in Milan in the year of 2005.

Key words: ethnic fashion(에스닉 패션), African ethnic type (아프리카 에스닉 유형), American Indian ethnic type(아메리카 인디언 유형), Japanese ethnic type(일본 에스닉 유형), milan collection(밀라노 컬렉션), New York collection (뉴욕 컬렉션)

## I. 서론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혁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날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세계의 패션도 서구식 의복형태로 획일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사회로 인한 동질화, 대량생산에 의한 획일화, 서구적 취향의 한계,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위기감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추구의 흐름이 20세기 후반에 대두하게 되었다. 대중매체가 발달하여 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쉽게 전파됨에 따라서 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패션의 경우 기계기술의 발전으로 기성복의 대량생산과 함께 전 세계로 급속히 보급된 서양복식의 획일적인 스타일에 대한 반동적인 표현으로 각 민족의 독특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민족 지향적 복식이 나타났다<sup>1)</sup>. 이국적 민속복의 재현은 1960년대 말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sup>2)</sup>, 1970년대에 이르러 민속풍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sup>3)</sup>, 1990년대 이후에는 타국의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민속풍 의상이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되어 세계 패션시장을 장식하며 보다 복잡적이고 다중화된 패션을 창조하고 있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의 중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에스닉 패션의 개념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에스닉 패션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물 및 학회지와 연구논문을 통해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한 시각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보그(Vogue Italy), 팸(FEM) 등과 같은 국내·외 패션 전문 잡지의 밀라노와 뉴욕의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사진, 케이블TV(동아TV), 인터넷(www.firstview.com, www.cft.or.kr)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컬렉션 개최지역의 선정은 세계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도시인 유럽의 밀라노와 미국의 뉴욕, 두 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컬렉션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5년간 밀라노와 뉴욕의 컬렉션 각 10회, 총 20회의 컬렉션으로 하였다.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밀라노, 뉴욕 컬렉션의 패션 디자인을 대상으로 시각자료의 색상, 소재, 디테일 분석을 통해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작품 총 267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에스닉 스타일 패션 작품의 선정은 패션 디자인 전공자 두 사람이 검토하여 에스닉 스타일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 분석 등을 통해 에스닉 패션의 유형분석, 년도별 변화추이, 시즌별, 컬렉션 지역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II. 에스닉 패션의 개념과 유행

### 1. 에스닉 패션의 개념

에스닉(ethnic:민속풍)이란 라틴어 ethnicus와 그리스어의 ethnikos에서 유래된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 '민족의', '종족의' 또는 '민족 특유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민족의'라는 뜻 외에도 '이교도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sup>5)</sup>. 특히,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몽고 등의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기독교권 즉, 이슬람교, 불교, 기타의 종교를 갖는 지역의 민족의상이 갖는 독특한 색이나 소재, 수공예적인 디테일 등으로 프리미티브한 경향이 보이는 것을 에스닉이라고 한다<sup>6)</sup>.

에스닉 패션은 이국적인 이미지들에서 얻어지는 각 민족 고유의 의상과 염색, 직물, 문양, 자수, 액세서리 등의 각종 모티프와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을 표현한다. 20세기 초 뽀 뽀아레(Paul Poiret)의 작품에서 동양 취미가 강한 에스닉 룩을 보인 후 1970년대 후반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여러 가지 에스닉 룩이 발표되었다<sup>7)</sup>. 이러한 다른 나라의 매력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에스닉 이미지는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도시문명의 발달하지 않은 이국적인 이미지의

전원이나 미개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도시 생활에서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에스닉 패션은 각 지역의 전통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중국동에서 터키·이집트·페르시아·인도·한국·중국·일본 등 동양의 신비롭고 독특한 풍속을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과<sup>9)</sup>,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이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원색적인 새감과 장신구 등을 모티브로 활용하는 디자인, 남태평양, 카리브해 제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의 열대지방의 강렬한 색채와 특유한 식물의 잎이나 꽃무늬를 모티브로 응용하는 디자인<sup>10)</sup>, 유럽 지방의 농민 의상, 깃털과 가죽을 이용한 아메리칸 인디언의 의상 등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는 디자인<sup>11)</sup>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스닉 패션은 특정지역의 전통적인 패션에 대한 타국의 문화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어, 각박하고 발달된 현대사회의 메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 본성에 따라 현대 패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 2. 에스닉 패션의 유형

에스닉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sup>12)13)14)15)</sup>에 의하면 중국, 일본의 동양과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과 남아메리카의 잉카, 그리고 동서양의 가운데에 위치한 인도와 중동, 남반구의 오세아니아 지역 등이 에스닉 스타일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민속적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의 에스닉 이미지 유형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선행 연구에서 분류한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표 1><sup>16)17)18)</sup>과 같이 중국풍, 일본풍, 인도풍, 아프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잉카풍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1) 중국풍 유형

중국의 전통복식은 청대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의복으로 치파오(qipao)는 타이트한 형태에 다트를 넣어 인체의 곡선을 살린 원피스 형의 드레스이다<sup>19)</sup>. 중국 전통복식은 직선적인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인체의 윤곽을 드러낸 타이트 실루엣으로 나뉘지며 대칭의 사선 여밈과 만다린 칼라, 끈 매듭단추, 옆트임, 앞여밈과 밑단 가장자리의 장식 등으로 들 수 있다<sup>20)</sup>. 중국은 실크의 원산지인 만큼 다양한 실크가 직조에 사용되어 복식에 화려함을 더하였으며 십이장문, 기하학문양, 동식물 문양 등의 문양장식과 북쪽의 검정색, 남쪽의 빨간색, 동쪽의 초록색, 서쪽의 흰색, 중방위의 황색 등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중 황색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붉은 색은 선사시대로부터 활력을 주는 색으로 간주되어 중국인들의 행운색으로 여겨지고 있다<sup>21)</sup>.

중국풍 패션은 중국 황실 및 일반인들이 즐겨 입던 전통복식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잘 알려진 경극 무대의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였다.

### 2) 일본풍 유형

일본의 전통복인 기모노는 원피스형식으로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몸에 붙지 않는 H라인과 소매와 옷자락이 길어 보온성을 높인 종류로 나뉘지며 남녀의 구별이 없는 복식으로 크기가 표준화되어 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소매는 길고 넓으며 목의 부분이 V자로 파여져 앞이 트여있으며 단추나 끈 없이 왼쪽 옷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며 허리에 오비(帶)를 두르는 한 장의 기본패턴으로 평면재단이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sup>22)</sup>. 기모노의 전통소재는 견이 사용되었고 직선적이고 단순한 기모노의 외형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염직기술이 발달, 자수와 염색을 이용한 화초문, 운문, 난초, 매화, 대나무 등과 나비, 학, 사군자의 모양을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순백의 의복에서 점차 색을 가미하게 되면서 에도시대와 겐로쿠시대에는 주홍색, 짙은 갈색, 남색, 검은색 등을 주로 사용하여 세밀하고 화려한 색을 연출하기 시작하였다<sup>23)</sup>.

### 3) 인도풍 유형

인도의 전통복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리(sari)는 폭 1미터 내외, 길이 5~6미터의 바느질이 되어 있지 않은 긴 천을 둘러 입는 형태의 의복으로, 쯔리(choli)라는 타이트한 상의와 함께 허리를 노출하여 입는 원피스형 의복이다<sup>24)</sup>. 또한 튜닉 스타일의 의복인 살와르 까미즈(Salwar Kamiz)는 무슬림의 여인들이 입던 옷에서 유래된 것으로 긴 셔츠를 까미즈(Kamiz), 헐렁한 바지를 빠자마(pajama)라고 하여 오르니(Orhni)라고 하는 일종의 스카프와 함께 착용한다. 가그라(Ghaghra)는 사리와는 달리 바느질을 한 옷으로 펼치면 도넛 모양이 되는 큰치마를 말하는데 화려한 자수와 주름으로 장식된 발목길이의 스커트이다<sup>25)</sup>.

### 4) 아프리카풍 유형

아프리카 대륙은 동반구 남서부에 위치한 남북 양반구에 걸친 세계 제2의 대륙으로 광활하고 인종도 다양한데 반해 평균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다른 대륙에 비해 고립된 특징의 부족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sup>26)</sup>. 또한 대륙의 90% 이상이 열대성 기후대에 속하므로 이슬람 문화권 영향권에 있는 사하라 북쪽을 제외한 블랙-아프리카의 경우 전통의복 보다는 기후 조건에 따라 신체에 직접 장식한 문양이나 장신구를 중심으로 한 복식문화가 형성되었다<sup>27)</sup>.

아프리카인들은 장식의 욕구로 강한 동물을 모방하고자 하여 사자의 털을 족장의 머리에 두르거나 사냥한 동물의 뼈를 장신구로 이용하였으며<sup>28)</sup> 얼룩말과 같은 신체 채색이나 피부에 상처를 내어 만드는 상흔을 통한 장식을 하였다. 대표적인 신체채색으로 주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고 치료약의 역할을 하는 빨간색과 성인식이나 신령들과의 교감, 전사자를 추모식 등에 사용되는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sup>29)</sup> 때로는 황토를 섞어 팔, 다리에 촘촘히 곡선이나 격자무늬, 얼룩말 무늬 등의 형태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sup>30)</sup>.

### 5) 아메리칸 인디언풍 유형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동양의 인도의 일부로 착각하여 원주민을 인디오(Indio:에스파냐어로 인도인이

라는 뜻)라고 부른 뒤, 본래의 인도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아메리카의 인도인'이라 부른데서 유래된 아메리칸 인디언은 북미 아메리카 지역의 에스키모와 알루트를 제외한 부족을 일컫는 말이다<sup>31)</sup>.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자원이 풍부한 자연 속에서 살면서 식료, 의복, 주거, 무기와 장신구 등을 자연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유럽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왔을 때는 이곳 원주민들은 아름답게 염색된 가죽과 모피, 깃털 그리고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풀로 만들어진 스커트, 로브, 헤어밴드 등과 두꺼운 생가죽이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수술 장식을 디테일로 사용한 모카신(moccasin), 세시(sash), 벨트(belt), 가터(garter), 네크레이스(necklace)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였다<sup>32)</sup>.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은 각기 다른 종교의식에 따라 복식문양을 다르게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염원을 빌었다. 또한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복식을 착용했고 복식에 사용된 동물의 재료는 수호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에게 독수리는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독수리 깃털은 의복에 덧붙여지거나 직물을 직조할 때 섞어 사용되었다<sup>33)</sup>.

### 6) 잉카풍 유형

잉카는 앞의 북아메리카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으로 남아메리카의 중앙 안데스 지방인 페루, 볼리비아 지역의 복식을 구성하는 색상과 패턴 등의 문양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나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복식에 비해 좀 더 완성된 의복의 형태를 지니며 발달된 직조기술을 사용한 양탄자, 러그 또는 그 문양을 활용한 망토나 풀 스커트 등의 의복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나바호(navajo)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우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줄무늬나 다양한 넓이의 밴드 직조기술이 발달하여 대각선, 지그재그선, 다이아몬드 형태, 노란색, 갈색, 파란색과 녹색, 붉은색 등으로 표현된 활동적인 표현이나 직선, 수평선, 수직선, 직사각형, 흰색, 검은색, 회색 등으로 표현된 정적인 문양으로 나뉘어 진다<sup>34)</sup>.

〈표 1〉 에스닉 패션 유형별 전통복식

지역·민족	중국	일본	인도
전통복식			
출처	<i>Decorated skin</i> , 2002 p. 202.	<i>Decorated skin</i> , 2002 p. 217.	<i>Decorated skin</i> , 2002 p. 180.
지역·민족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잉카
전통복식			
출처	<i>Decorated skin</i> , 2002 p. 156.	<i>Native American in Costume</i> , www.yahoo.com. 2006. 3. 2	<i>August Racinet</i> , www.yahoo.com. 2006. 3. 2

### Ⅲ.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 특성

#### 1) 유형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과 변화추이

〈표 2〉는 밀라노, 뉴욕 컬렉션의 총 267 작품을 에스닉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유형별로는 아프리카 풍이 62작품, 23.2%로 여섯 가지의 에스닉 패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프리카풍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 인도풍, 중국풍, 잉카풍의 순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는 2001년에 68작품 22.5%, 2002년에 58작품 21.7%에서 2003년에 30작품 11.2%, 2004년에 18작품 6.7%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에 93작품 34.8%로 급증하여 2001년보다 30%나 증가하여 에스닉 패션

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여섯가지 에스닉 패션 유형의 년도별, 시즌별, 컬렉션별 변화추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여섯 가지 에스닉 유형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아프리카풍은 2002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03년 S/S시즌을 제외한 S/S시즌에 빠짐없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밀라노 컬렉션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뉴욕 컬렉션의 경우 2005년 S/S시즌에만 유일하게 아프리카풍이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아메리칸 인디언풍 역시 2002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밀라노 컬렉션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 S/S까지 꾸준히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S/S시즌에만 보이고 있었다.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표 2> 에스닉 패션 유형별 특성

n=267, 단위: 작품수(%)

유형	년도					시즌		컬렉션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SS	FW	Milano	New York	
아프리카	9 (3.4)	19 (7.1)	0 (0)	4 (1.4)	30 (11.2)	53 (19.8)	9 (3.3)	46 (17.2)	16 (5.9)	<b>62</b> <b>(23.2)</b>
아메리칸 인디언	15 (5.6)	17 (6.3)	8 (2.9)	3 (1.1)	7 (2.6)	38 (14.2)	12 (4.4)	39 (14.6)	11 (4.1)	<b>50</b> <b>(18.7)</b>
일본	19 (7.1)	5 (1.8)	4 (1.4)	1 (0.3)	17 (6.3)	37 (13.8)	9 (3.3)	33 (12.3)	13 (4.8)	<b>46</b> <b>(17.2)</b>
인도	9 (3.4)	8 (2.9)	5 (1.8)	1 (0.3)	20 (7.4)	22 (8.2)	21 (7.8)	28 (10.4)	15 (5.6)	<b>43</b> <b>(16.1)</b>
중국	8 (2.9)	4 (1.4)	10 (3.7)	3 (1.1)	10 (3.7)	22 (8.2)	13 (4.8)	26 (9.7)	9 (3.3)	<b>35</b> <b>(13.1)</b>
잉카	8 (2.9)	5 (1.8)	3 (1.1)	6 (2.2)	9 (3.3)	21 (7.8)	10 (3.7)	20 (7.4)	11 (4.1)	<b>31</b> <b>(11.6)</b>
계	<b>68</b> <b>(22.5)</b>	<b>58</b> <b>(21.7)</b>	<b>30</b> <b>(11.2)</b>	<b>18</b> <b>(6.7)</b>	<b>93</b> <b>(34.8)</b>	<b>193</b> <b>(72.2)</b>	<b>74</b> <b>(27.7)</b>	<b>192</b> <b>(71.9)</b>	<b>75</b> <b>(28)</b>	<b>267</b> <b>(100)</b>

<표 3> 에스닉패션 유행의 년도/ 시즌/ 컬렉션별 변화 추이

n=267, 단위: 작품수(%)

패션유형	년도 시즌 컬렉션	2001						2002					
		SS			FW			SS			FW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Milano	New York	합
아프리카풍		9(3.3)	0(0)	9(3.3)	0(0)	0(0)	0(0)	16(5.9)	0(0)	16(5.9)	3(1.1)	0(0)	3(1.1)
아메리칸 인디언풍		2(0.7)	3(1.1)	5(1.8)	9(3.3)	1(0.3)	10(3.7)	15(5.6)	0(0)	15(5.6)	2(0.7)	0(0)	2(0.7)
일본풍		11(4.1)	2(0.7)	13(4.8)	6(2.2)	0(0)	6(2.2)	2(0.7)	2(1.1)	4(1.4)	1(0.3)	0(0)	1(0.3)
인도풍		5(0.7)	0(0)	5(1.8)	3(1.1)	1(0.3)	4(1.4)	2(0.7)	2(1.1)	4(1.4)	3(1.1)	1(0.3)	4(1.4)
중국풍		2(0.7)	1(0.3)	3(1.1)	4(1.4)	1(0.3)	5(1.8)	2(0.7)	0(0)	2(0.7)	0(0)	2(0.7)	2(0.7)
잉카풍		3(1.1)	0(0)	3(1.1)	4(1.4)	1(0.3)	5(1.8)	3(1.1)	0(0)	3(1.1)	0(0)	2(0.7)	2(0.7)
패션유형	년도 시즌 컬렉션	2003						2004					
		SS			FW			SS			FW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합
아프리카풍		0(0)	0(0)	0(0)	0(0)	0(0)	0(0)	1(0.3)	0(0)	1(0.3)	3(1.1)	0(0)	3(1.1)
아메리칸 인디언풍		7(2.6)	1(0.3)	8(2.9)	0(0)	0(0)	0(0)	3(1.1)	0(0)	3(1.1)	0(0)	0(0)	0(0)
일본풍		2(0.7)	1(0.3)	3(1.1)	0(0)	1(0.3)	1(0.3)	1(0.3)	0(0)	1(0.3)	0(0)	0(0)	0(0)
인도풍		0(0)	0(0)	0(0)	4(1.4)	1(0.3)	5(1.8)	1(0.3)	0(0)	1(0.3)	0(0)	0(0)	0(0)
중국풍		7(2.6)	0(0)	7(2.6)	1(0.3)	2(0.7)	3(1.1)	0(0)	0(0)	0(0)	3(1.1)	0(0)	3(1.1)
잉카풍		2(0.7)	0(0)	2(0.7)	1(0.3)	0(0)	1(0.3)	5(1.8)	0(0)	5(1.8)	1(0.3)	0(0)	1(0.3)
패션유형	년도 시즌 컬렉션	2005						합계		총합계			
		SS			FW			Milan	New York				
		Milan	New York	합	Milan	New York	합						
아프리카풍		12(4.4)	15(5.6)	27(10.1)	2(0.7)	1(0.3)	3(1.1)	46(17.2)	16(5.9)	62(23.2)			
아메리칸 인디언풍		1(0.3)	6(2.2)	7(2.6)	0(0)	0(0)	0(0)	39(14.6)	11(4.1)	50(18.7)			
일본풍		9(3.3)	7(2.6)	16(5.9)	1(0.3)	0(0)	1(0.3)	33(12.3)	13(4.8)	46(17.2)			
인도풍		10(3.7)	2(0.7)	12(4.4)	0(0)	8(2.9)	8(2.9)	28(10.4)	15(5.6)	43(16.1)			
중국풍		7(2.6)	3(1.1)	10(3.7)	0(0)	0(0)	0(0)	26(9.7)	9(3)	35(13.1)			
잉카풍		0(0)	8(2.9)	8(2.9)	1(0.3)	0(0)	1(0.3)	20(7.4)	11(4.1)	31(11.6)			

일본풍은 2001년 S/S시즌 가장 많이 나타난 에스닉 유형이었으나 그 이후 차츰 비중이 줄어들었다. 일본풍은 이후 2005년 S/S시즌 다시 비중이 커진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밀라노 컬렉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도풍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비교적 꾸준히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뉴욕 컬렉션에서는 S/S시즌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2005년 S/S시즌에 가장 많은 인도풍의 작품이 보였다. 중국풍은 시즌별로 큰 차이 없이 등장하는 유형으로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모두 적은 비중이지만 꾸준히 나타났으며, 특히 2003년 S/S시즌 밀라노 컬렉션에서 한동안 그 비중이 급증하였다. 잉카풍은 주로 밀라노 컬렉션에서 전 시즌에 걸쳐 꾸준히 나타나는 에스닉 패션 유형이었으나 2005년 S/S시즌에는 그동안 잉카풍의 작품이 많이 보이지 않던 뉴욕 컬렉션에서 많은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에스닉 유형이 지난 5년간 변화한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일본풍은 2005년 F/W시즌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에 반해 중국 유형이 2003년 S/S시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유형과 함께 인도 유형 역시 주로 F/W시즌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까지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특히 뉴욕 컬렉션에서 2005년 F/W시즌 인도 유형의 작품이 급증한 영향을 받았다. 아메리칸 인디언 유형의 경우 주로 S/S시즌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부터 2003년 S/S시즌의 기간에 비해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에스닉 패션 유형의 컬렉션 발표 지역별 변화추이를 보면, 밀라노 컬렉션에서는 인도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유형이 F/W시즌보다는 S/S시즌에 더 많이 나타나며 시즌별 유형의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컬렉션에서 밀라노 컬렉션의 비중이 뉴욕 컬렉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뉴욕 컬렉션에서는 2005년 S/S시즌에 인도 유형의 작품이 급증한 점이 밀라노 컬렉션과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유형의 경우는

비중이 크지 않아 밀라노 컬렉션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연도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

### (1) 2001년 에스닉 패션

2001년 S/S시즌에는 아프리카풍과 일본풍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섬세한 기모노 고유의 문양과 V넥라인 등 기모노를 재현한 디테일의 일본풍과 블랙&화이트 격자, 스트라이프 패턴과 가죽, 깃털 등의 동물을 이용한 아프리카풍의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풍의 경우 뉴욕보다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풍의 경우 뉴욕과 밀라노 컬렉션에서 함께 나타났다.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é)는 야자수 잎을 엮어 만든 원피스와 아프리카의 채색장식을 응용한 원피스 디자인으로 아프리카 모티브를 강조하였으며,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 등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는 일본의 기모노 디테일을 사용하며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한 반면,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등의 뉴욕 컬렉션 디자이너는 기모노에 주로 사용되는 텍스타일 프린트를 응용하는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2001년 F/W시즌에는 깃털, 프린지 장식 등과 함께 아메리칸 인디언풍이 가장 많은 비중으로 등장하였다. 지역별로는 타시즌과 동일하게 뉴욕보다는 밀라노 지역에서 에스닉 작품이 많이 선보였다.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는 깃털장식을 응용하여 이국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알렉산드로 아플롬보(Alexandro Aplombo)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얼굴을 아플리케(appliqué) 장식으로 표현한 디테일을 사용하였으며, 미소니(Missoni)는 브랜드 고유의 에스닉 컬러로 이루어진 스트라이프 패턴과 프린지가 조화를 이룬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작품을 선보였다(표 4)<sup>35)36)</sup>.

### (2) 2002년 에스닉 패션

2002년 S/S시즌에는 뉴욕 컬렉션에 비해 밀라노 컬렉션에서 에스닉 유형의 작품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 중 아프리카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프리카풍에서는 전통 타투와 액세서리,

<표 4> 2001년 에스닉 패션

시즌	S/S		F/W	
유형	아프리카	일본풍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디자인				
디자이너	지안프랑코 페레	안토니오 마라스	로베르토 까발리	알렉산드로 아플롬보
컬렉션	밀라노	밀라노	밀라노	밀라노

<표 5> 2002년 에스닉 패션

시즌	S/S		F/W	
유형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아프리카	인도
디자인				
디자이너	로베르토 까발리	스포츠 막스	존 리치몬드	미소니
컬렉션	밀라노	밀라노	밀라노	밀라노

디테일을 브라운 계열의 텍스타일로 표현한 패턴이 주로 나타났으며, 막스 마라(Max Mara)의 컬렉션에서 아프리카풍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미소니(Missoni) 등의 컬렉션에서는 전통 패브릭을 이용한 표현방법과 깃털과 절개, 프린지 장식을 이용한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표현방법이 많이 보였다.

2002년 F/W 시즌에는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유사한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잉카풍을 제외한 5가지의 유형이 고른 분포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즌의 에스닉 작품은 전반적으로 단순한 실루엣에 패브릭 텍스타일이나 디테일을 통해 변화를 준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붉은색 계열과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존 리치몬드(John

Richmond)의 작품에서 아프리카 신체장식을 패브릭에 활용한 아프리카풍이 보였으며, 미소니의 작품에서는 인도의 사리를 응용한 드레스가 선보였다. 또한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와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의 디자이너 작품에서는 패브릭 패턴이나 기모노 디테일 등의 일본풍이 사용되었다(표 5)<sup>37)38)</sup>.

### (3) 2003년 에스닉 패션

2003년 S/S시즌을 중심으로 중국풍의 작품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이 시즌에는 중국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의



작품에서 레드와 옐로 계열의 색상으로 표현된 중국 전통복식의 디테일과 패브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이 많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트루사디(Trussardi)의 컬렉션에서는 캐주얼한 느낌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디테일이 사용되었으며 제레미 스콧(Jeremy Scott)은 스웨이드 소재와 비즈장식으로 아메리칸 인디언 전통복식의 디자인을 응용한 수영복을 선보였다.

2003년 F/W시즌에는 중후한 느낌을 주는 무거운 면서도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된 중국풍 및 인도풍의 작품이 많이 나타났다. 에트로(Etro)의 작품에서는 브라운 계열의 무거운 컬러와 인도 고유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패브릭 패턴을 응용한 디자인이 선보였으며, 오스카 드 라 렌타의 작품에서는 레드와 옐로 등의 색상과 매끄러운 실크소재가 어우러져 에트로의 작품보다 밝은 느낌을 주는 중후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매튜 윌리엄슨(Matthew Williamson)의 작품에서는 중국 전통 회화의 한폭 사진이 패브릭위에 자수 장식으로 표현되어 동양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표 6)39)40).

한편 2003년 F/W시즌에는 밀라노에 비해 비교적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던 뉴욕 컬렉션의 비중이 처음으로 밀라노 컬렉션보다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 (4) 2004년 에스닉 패션

2004년 S/S시즌은 전 시즌에 비해 명도가 높아지

면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강조되었으며, 잉카풍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인도풍도 많이 보였다. 에트로와 프라다(Prada)등의 디자이너가 잉카의 전통적인 직조패턴을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로 표현하면서 이국적인 멋을 더하였으며, 에트로의 작품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 패브릭 패턴을 화려한 색상으로 응용한 에트로 고유의 패턴이 함께 선보이기도 하였다.

2004년 F/W시즌에는 다시 어두워진 컬러들이 다양한 패턴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아프리카풍과 중국풍이 같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에트로, 미소니등의 디자이너는 아프리카 고유의 목걸이 장식을 응용하여 현대적인 의상에 아프리카의 전통복의 느낌을 부여하였다. 모스키노(Moschino)의 작품에서는 어두운 컬러로 표현된 중국 고유의 패브릭 패턴과 중국 전통복 디테일이 사용되며 중국풍을 표현하였다(표 7)41)42).

2004년 S/S와 F/W시즌의 뉴욕 컬렉션에서는 에스닉한 작품이 보이지 않아, 많은 에스닉 작품이 보였던 2003년 S/S, F/W 시즌과 대조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 (5) 2005년 에스닉 패션

2005년 S/S는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특히 뉴욕 컬렉션의 경우 2004년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다시

<표 6> 2003년 에스닉 패션

시즌 유형	S/S		F/W	
	중국풍	인디언풍	인도풍	중국풍
디자인				
디자이너 컬렉션	로베르토 까발리 밀라노	제레미스콧 뉴욕	오스카 드 라 렌타 뉴욕	매튜윌리엄슨 뉴욕

<표 7> 2004년 에스닉 패션

시즌	S/S		F/W	
유형	잉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아프리카풍	중국풍
디자인				
디자이너	에트로	에트로	에트로	모스키노
컬렉션	밀라노	밀라노	밀라노	밀라노

<표 8> 2005년 에스닉 패션

시즌	S/S		F/W	
유형	중국풍	일본풍	인도풍	인도풍
디자인				
디자이너	조지오 아르마니	란세티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란세티
컬렉션	밀라노	밀라노	뉴욕	밀라노

나타났다. 이 시즌에는 아프리카풍을 중심으로 일본풍, 인도풍, 중국풍, 잉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순으로 여섯 가지의 유형이 고루 선보였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난 아프리카풍을 위해 로베르토 까발리와 오스카 드 라 렌타 등은 아프리카 전통 소재의 패턴을 응용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란세티(Lancetti)는 기모노의 형태가 밝고 부드러운 컬러와 실용적인 소재를 표현하였다. 한편 조지오 아르마니의 컬렉션에서는 중국 전통복의 디테일을 응용한 화려한 팬츠슈트를 선보이며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표현하였다.

2005년 F/W시즌에는 밀라노에 비해 뉴욕 컬렉션에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이 많은 보였다. 이 시즌

에는 인도풍의 작품이 많이 선보였는데 특히,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의 컬렉션에서는 인도 전통복식의 문양에서 나타나는 화려하고 섬세한 패턴이 전 시즌에 비해 다소 무거워진 색감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란세티의 작품에서는 바이올렛 계열의 컬러와 오버사이즈의 목걸이 장식으로 인도풍이 표현되었으며, 그 외 비씨비지 막스 아즈리아(BCBG Max Azria)의 작품에서도 인도의 화려한 패브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이 소개되었다(표 8)43)44).

2001년부터 2005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시즌별로는 F/W시즌보다는 S/S시즌의 컬렉션에 에스닉 유형이 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밀라노에서 시즌별 차이가 주로 컸으며, 뉴욕의 경우는

밀라노 컬렉션에 비해 시즌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년도별로 소개된 에스닉 작품의 수는 2001년 68 작품, 2002년 58작품, 2003년 11작품, 2004년 7작품의 작품이 보이며 에스닉 스타일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5년 93작품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최근 5년의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의 에스닉 작품이 보이며 에스닉 스타일의 부활 경향을 보였다.

### 3) 시즌별 에스닉 패션의 특성분석

연구 대상이 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총 20개의 시즌별로 각각의 시즌에 나타난 컬렉션 경향의 특성과 주요 디자이너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9).

시즌별로는 전체 267 작품 중 S/S시즌에 나타나는 에스닉 작품의 비중이 193, 72%로 F/W시즌보다는 S/S시즌에 에스닉 유형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에스닉 유형은 아프리카풍이었고, 이어서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의 유형 순으로 비중을 나타낸 반면, F/W시즌에는 인도풍의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아메리칸 인디언풍, 잉카풍의 순이었다.

S/S시즌에 가장 많이 나타난 아프리카풍은 지안 프랑코 페레, 막스 마라, 오스카 드 라 렌타 등의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며, 뉴욕 보다는 밀라

노 컬렉션에서 많이 보였다. 아프리카풍 다음으로 S/S시즌에 주로 나타나는 아메리칸 인디언풍은 트루사디, 안나 수이(Anna Sui), 미소니 등의 디자이너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였으며, 변형된 스트라이프를 응용한 아메리칸 인디언 고유의 텍스타일 패턴과 프린지 등의 디테일로 표현되었다. 아메리칸 인디언풍과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난 일본풍은 알비에로 마티니(Alviero Martini), 에트로의 작품에서 많이 보였으며 주로 패브릭 디자인이나 기모노 디테일의 응용으로 표현되었다. 그 외 S/S시즌에는 인도풍, 중국풍, 잉카풍의 작품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잉카풍의 경우 대부분 밀라노보다는 뉴욕 컬렉션에서 많이 보였다.

F/W시즌에는 인도풍의 작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에트로 등의 디자이너가 인도 고유의 섬세하고 정교한 패브릭 패턴을 응용한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뉴욕 컬렉션에서 그 비중이 밀라노 컬렉션보다 크게 보였다. 인도풍 다음으로 중국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작품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국풍은 안토니오 말라스(Antonio Marras)의 작품에서 주로 보였는데, 그는 중국 전통복을 미니스커트로 변형시키며 현대화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아메리칸 인디언풍은 주로 깃털장식을 디테일로 사용한 디자인이 보였는데, 이와 같은 작품은 미소니, 로

<표 9> 시즌별 에스닉 패션 유형 특성과 디자이너

시즌	유형	작품수 (%)	주요 디자이너
SS	아프리카풍	53 (27.4)	지안프랑코 페레, 막스 마라, 오스카 드 라 렌타
	인도풍	22 (11.3)	알비에로 마티니, 에트로
	아메리칸 인디언풍	38 (19.6)	트루사디, 안나 수이, 미소니
	일본풍	37 (19.1)	란세티, 안토니오 마라스, 버나즈 사라포르
	잉카풍	21 (10.8)	미소니, 에트로,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자크 포센
	중국풍	22 (11.3)	조지오 아르마니, 로베르토 까발리
계		193 (72.2)	
FW	아프리카풍	9 (12.1)	존 리치몬드, 미소니, 란세티
	인도풍	21 (28.3)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에트로,
	아메리칸 인디언풍	12 (16.2)	미소니, 로베르토 까발리
	일본풍	9 (12.1)	에트로, 안토니오 마라스
	잉카풍	10 (13.5)	알비에로 마티니, 오스카 드 라 렌타
	중국풍	13 (17.5)	안토니오 마라스
계		74 (27.7)	
총계		267 (100)	

베르토 까발리의 무대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외 잉카풍, 아프리카풍, 일본풍의 순으로 F/W시즌의 에스닉 유형이 나타났는데, 세 가지의 유형 모두 밀라노 컬렉션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총 20회에 걸친 컬렉션에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인 디자이너는 총 52명으로 나타났다.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선보인 디자이너는 에트로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 시즌에 걸쳐 고르게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소개하며, 총 267 작품 중 약 10%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것은 이국적인 텍스타일 패턴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에트로의 고유 컨셉에서 기인한 것이며, 에트로의 컬렉션에서는 인도풍의 패브릭 패턴과 동양적인 디테일, 아프리카풍의 소품이 자주 등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는 미소니였다. 미소니는 이국적인 이카트 기법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대표하는 브랜드 컨셉을 바탕으로 아프리카풍과 아메리칸 인디언풍을 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에트로, 미소니와 같이 고유 컨셉이 에스닉한 성격의 디자이너 컬렉션은 트렌드에 상관없이 전 시즌에 걸쳐 에스닉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인도풍을 주로 표현하는 오스카 드 라 렌타와 아프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을 주로 표현한 로베르토 까발리가 유사한 비중으로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일본풍, 인도풍, 잉카풍 등 다양한 에스닉 유형의 작품을 선보인 알비에로 마티니(Alviero Martini)와 주로 일본풍과 중국풍 등 동양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안토니오 마라스, 그리고 아프리카풍과 일본풍의 작품을 주로 선보인 란세티 등이 에스닉 유형을 주로 사용하는 디자이너로 나타났다.

#### 4) 밀라노 컬렉션과 뉴욕 컬렉션의 비교

밀라노 컬렉션과 뉴욕 컬렉션 지역별로 나타난 에스닉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뉴욕 컬렉션보다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에스닉 작품이 2.5배 정도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 시크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보다는 패션과 예술작품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밀라노 컬렉션 디자이너들이 에스닉 유형을 작품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0).

에스닉 유형 중에서도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모두 아프리카풍의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밀라노 컬렉션의 경우 아프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일본풍, 인도풍, 중국풍, 잉카풍의 순서로, 뉴욕 컬렉션의 경우 아프리카풍, 인도풍, 일본풍, 아메리칸 인디언풍과 잉카풍, 중국풍의 순으로 에스닉 유형의 비중이 보였다.

<표 10> 컬렉션별 에스닉패션 유형 특성과 디자이너

컬렉션	유형	작품수 (%)	주요 디자이너
밀라노	아프리카풍	46 (23.9)	지안프랑코 페레, 막스 마라, 로베르토 까발리
	인도풍	28 (14.5)	알비에로 마티니, 에트로, 블루마린
	아메리칸 인디언풍	39 (20.3)	트루사디, 미소니, 로베르토 까발리
	일본풍	33 (17.1)	란세티, 안토니오 마라스, 에트로
	잉카풍	20 (10.4)	에트로, 미소니, 알비에로 마티니
	중국풍	26 (13.5)	조지오 아르마니, 로베르토 까발리
계		192 (71.9)	
컬렉션	유형	작품수 (%)	주요 디자이너
뉴욕	아프리카풍	16 (21.3)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오스카 드 라 렌타
	인도풍	15 (20.0)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오스카 드 라 렌타
	아메리칸 인디언풍	11 (14.6)	안나 수이, 쿠스토 바르셀로나
	일본풍	13 (17.3)	버나즈 사라포르, 마크 제이콥스
	잉카풍	11 (14.6)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자크 포센
	중국풍	9 (12.0)	오스카 드 라 렌타, 비찌비지 막스아즈리아
계		75 (28.1)	
총계		267 (100)	

〈표 11〉 에스닉 패션 유형별 디자인작품과 디자이너

에스닉유형	아프리카	아메리칸인디언	일본	인도	중국	잉카	
디자인							
표현 방법	소재	-아프리카 전통 소재의 패턴 -자연적 소재를 이용한 표현	-깃털, 가죽 등의 자연적인 소재 -거친 느낌의 면, 모	-광택있는 실크 새틴 -섬세한 자수 프린트 -가벼운 쉬폰	-광택있는 실크 새틴 -가벼운 쉬폰 -섬세하고 화려한 패턴	-광택있는 실크 새틴 -화려하고 대담한 자수 -프린트 패턴	-기하학 패턴의 응용 -거친 느낌의 모
	색상	-타투 응용한 검정, 흰색의 조화 -황토계열	-흰색 -황토계열 -블루 -그린	-파스텔 계열 -기모노 디테일의 포인트 배색	-붉은 계열과 골드 포인트 배색	-노랑, 빨강 등의 화려한 색상 -자수, 프린트 강조한 무채색톤	-검정과 흰색대비 -흰색 포인트와 중간색 계열
	디테일	-소재, 장신구에 전통 액세서리 응용 -원피스 구조의 디자인 응용	-깃털, 가죽의 질감을 살린 프린트 장식 -헤어밴드, 목걸이 등 액세서리 응용	-기모노 V넥 라인 -기모노 소재 패턴과 오비장식 응용	-사리응용 원피스 -까미즈응용 셔츠	-차이니스 칼라 -치파오응용 원피스	-기하학 패턴의 단장식과 액세서리 -망토, 담요를 두른 실루엣과 디테일 응용
디자이너	밀라노	-지안 프랑코 페레 -막스마라 -로베르토 까발리 -미소니 -스포츠막스 -란세티	-트루사디 -로베르토 까발리 -미소니 -알렌산드로 아폴롬보 -블루마린 -스텔라 커턴트	-안토니오 마라스 -란세티 -에트로 -모스키노 -막스마라	-알비에로 마티니 -블루마린 -에트로 -엠펠리오 아르마니 -지안 프랑코 페레	-안토니오 마라스 -조지오 아르마니 -로베르토 까발리 -미우 미우	-미소니 -에트로 -알비에로 마티니 -에밀리오 푸치
	뉴욕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오스카 드 라렌타 -알렉산더 헤르코비치 -안나수이	-안나수이 -쿠스토 바르셀로나 -제레미 스콧	-버나즈 사라포르 -프로렌자 술러 -마크 제이콥스 -마이클 코어스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오스카 드 라렌타 -비쉴비지 막스아리아 -마이클 코어스	-오스카 드 라렌타 -비쉴비지 막스아리아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오스카 드 라렌타 -마크 바이마크 제이콥스 -자크 포센 -안나 수이

컬렉션 지역별로 에스닉 작품이 많이 나타나는 시즌은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 모두 S/S시즌으로, S/S 시즌에는 F/W시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선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닉 스타일의 작품을 선보이는 디자이너의 비중 역시 밀라노 컬렉션과 뉴욕 컬렉션에 따라 차이

를 나타냈다. 연구 자료로 사용된 작품의 총 52명의 디자이너 중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는 34명, 뉴욕 컬렉션의 디자이너는 18명으로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들이 에스닉 이미지를 작품에 즐겨 표현하고 있었다.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 중 에스닉 이미지의 작

품을 가장 많이 선보이고 있는 디자이너는 에트로, 미소니, 로베르토 까발리의 순이었다. 밀라노 컬렉션에서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많은 작품을 소개한 디자이너에 대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시즌별 에스닉 패션 유형의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밀라노 컬렉션의 디자이너 및 작품 비중이 뉴욕 컬렉션보다 월등히 높아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뉴욕 컬렉션의 경우 인도 유형의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오스카 드 라 렌타의 컬렉션에서 에스닉 작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으며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는 S/S시즌에는 아프리카 유형을, F/W시즌에는 인도 유형을 선보이며 아메리칸 인디언 유형을 주로 선보이는 안나 수이와 함께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을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의 디자이너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시크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보다는 패션과 예술작품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월등히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2004년 뉴욕 컬렉션에서는 에스닉 유형의 작품이 S/S시즌과 F/W시즌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으며 뉴욕 컬렉션에서의 에스닉 유형의 퇴조를 의미하는 듯 하였으나 이어지는 2005년 S/S시즌에 오히려 뉴욕에서 밀라노 컬렉션보다 많은 수의 에스닉 작품이 선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F/W시즌에도 이어지며 뉴욕 컬렉션 디자이너들의 에스닉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스닉 패션 유형별로 디자인 작품과 표현방법, 디자이너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 V. 결론

다변화된 사회와 매체의 발달,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 본심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대 패션의 미적 기준은 서양중심의 문화에서 원시적이거나 익숙지 않은 다른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에스닉 이미지는 토털패션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미적기준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패션에 관한 개념을 고찰하고 에스닉 패션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밀라노와 뉴욕에서 열린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작품 중 에스닉 이미지의 작품 총 267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패션 이미지를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인도, 중국, 잉카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에스닉 패션 유형 중 아프리카풍의 작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인도, 중국, 잉카 유형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년도별 변화추이는 2001년, 2002년에 비해서 2003년, 2004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 2001년보다 30%이상 급증하였다.

셋째, 시즌별로는 F/W시즌보다 S/S시즌에 에스닉 패션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으며 S/S시즌에는 아프리카 유형이, F/W시즌에는 인도 유형의 작품이 가장 많이 소개되었다.

넷째, 밀라노와 뉴욕의 컬렉션을 비교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시크하고 실용적인 작품을 주로 선보이는 뉴욕 컬렉션보다는 패션과 예술작품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밀라노 컬렉션에서 월등히 많은 비중의 에스닉 작품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 참고문헌

- 1) 최해주, 안은경 (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 141.
- 2) 박종희 (1995).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정연자 (199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p. 128.
- 4) 최영옥 (2005). 현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의 특성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5), p. 481.
- 5) 두산동아편집부 (2006). 동아프라이밍영한사전. 서울: (주) 두산동아, p. 878.
- 6) 이상례 (1994).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 7) 라사라패션 편집부 (2002). 패션용어사전.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p. 48.
- 8) 서봉하 (2004). 1990년대 이후 에스닉 룩의 폐쇄형과 개방형의 시기각적 연구. 복식, 54(4), p. 151.

- 9) 정삼호, 김영숙 (1998). *현대 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p. 126.
- 10) 공미란, 안인숙 (2003). *패션디자인*. 서울: 예학사, pp. 146-147.
- 11) 정홍숙, 정삼호, 홍병숙 (1998). *현대인과의상*. 서울: 교문사, pp. 112-113.
- 12) 간문자 (1996). 1960년대 저항 패션이 민속풍 세너에 미친 영향. *복식*, 30.
- 13) 서봉하. *앞의 책*.
- 14) 최영옥. *앞의 책*.
- 15) 정연자. *앞의 책*.
- 16) Karl Gröning (2002). *Decorated skin*. London: Thames Hudson. pp. 156-202.
- 17) Native American in Costume. 자료검색일 2006. 3. 2, 자료출처 [www.yahoo.com](http://www.yahoo.com)
- 18) August Racinet. 자료검색일 2006. 3. 2, 자료출처 [www.yahoo.com](http://www.yahoo.com)
- 19) 김문숙 (1981). 우리복식에 중국복식이 미친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9, p. 123.
- 20) 진경옥, 이민정 (2003).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 p. 446.
- 21) 장미숙 (1999).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21.
- 22) 장미숙. *앞의 책*, pp. 419-420.
- 23) 진경옥, 이민정. *앞의 책*, p. 445.
- 24) 네이버 백과사전. 인도복식. 자료검색일 2006. 1. 5,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25) 이옥순 (2002).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서울: 책세상, p. 77.
- 26) 박성희. *앞의 책*, p. 18.
- 27) 장미숙. *앞의 책*, p. 422.
- 28) 장현숙. *앞의 책*, p. 49.
- 29) Berebice Geoffroy-Schneiter (2001). *Ethnic Style*. Kentucky: Assouline, p. 22.
- 30) 박진희. *앞의 책*, p. 8.
- 31) 네이버 백과사전. 아메리칸 인디언. 자료검색일 2005. 9. 1,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32) 엄윤경 (1994). 북아메리카 민속의상의 수술허 장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 33) 이민경, 한명숙 (1998). 북아메리칸 북아메리카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복식문화연구*, 6, p. 39.
- 34) 정미실 (2002). 19세기 후반 전환시대 Navajo 북아메리카직물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0, p. 37.
- 35) Spring 2001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9. 7,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36) Fall/Winter 2001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9. 7,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37) Spring 2002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9. 15,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38) Fall/winter 2002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9. 15,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39) Spring 2003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10. 1,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40) Fall/Winter 2003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10. 1,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41) Spring 2004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10. 15,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42) Fall/Winter 2004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10. 15,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43) Spring 2005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11. 1,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
- 44) Fall/Winter 2005 Womens Collection. *Firstview Collection Online*. 자료검색일 2005. 11. 1, 자료출처 <http://firstview.com>